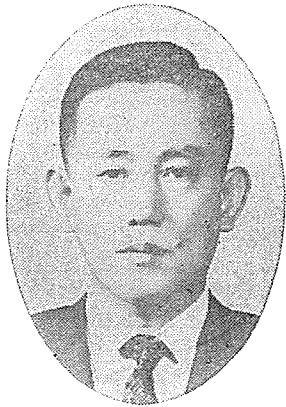


經濟發展과 科學



崔 亨 燮
科學技術處長官

國內外的 科學技術 交流로

오늘 이 뜻깊은 科學技術綜合 심포지움에 參席하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바쁘신 時間을 내어 어려움을 무릅쓰고 멀리에서 歸國하신 在歐科學技術人 여러분을 충심으로 환영하며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參席하신 모든분께 深深한 感謝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今年으로서 우리는 光復 30周年을 맞게 되었습니다. 지난 30年間 우리 國民은 정말로 어려운 試練들을 피와 땀으로 克服하면서 成年韓國의 미더운 오늘이 있기까지 國家發展을 위하여 努力하여 왔습니다.

狹少한 國土 위에서 過多한 人口를 扶養하고 急速한 經濟發展을 이룩하기 위하여는 工業化와 輸出伸張의 艱難에 없었으며 또한 이를 彌補할 수 있는 人力開發과 科學技術의 發展이 不可避하게 要請되었던 것입니다.

지난 60年代로부터 우리는 祖國의 近代化와 工業化를 強力히 推進하여 왔고 科學技術發展을 國家的인 次元에서 重點的으로 推進하여 왔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우리는 近代產業과 科學技術의 不毛地 위에 經濟發展과 科學技術振興의 튼튼한 土台를 構築하여 開發途上國家에서는 하나의 模範的인 發展을 이룩하게 되었고, 우리들도 땀 흘려 일하면 잘 살 수 있다는 國民的인 自信感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歷史的 時點에서 우리들 科學技術人들이 한 자리에 모여 國家와 國民이 우리에게 무엇을 期待하고 있는가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使命이 무엇인가를 다시한번 생각하여 보고 國家經濟發展과 科學技術振興을 위하여 진지하게 論議한다는 것은 그 意義가 참으로 크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尊敬하는 科學技術人 여러분!

우리의 앞에는 많은 어려움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自主國防態勢의 確立은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國家 存立을 위한 우리의 一次的인 責務이며, 重化學工業의 建設과 輸出의 伸張, 그리고 食糧의 自給化는 우리 國民이 經濟的으로 살아가기 위한 國家的인 課題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다싶이 國際經濟社會의 與件은 날이 갈수록 어렵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技術振興 계기되어야

國家發展을 위한 지혜 集約

國際的인 에너지波動, 食糧 및 原資材確保의 어려움, 그리고 不況으로 인한 輸出市場의 애로 등 모두가 우리 經濟에 불어오는 外部的인 거센 바람이며, 克服하여 넘어가야 할 衝擊과 挑戰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결코 屈하지 않을 것입니다. 外勢의 侵略과 國際力學關係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우리 民族은 오랜 歷史를 살아남아 왔으며,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남을 것입니다.

科學技術人 여러분!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國民的인 지혜를 集約하고 苦心하여 努力함으로써 當面한 試練을 克服하고 나아가 한 段階 높은 發展에의 自信과 力量을 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 科學技術人들이 이러한 國民的인 隊列에 앞장서서 科學技術的 側面에서 모든 支援을 다하고 國家發展을 向한 能動的인 參與와 寄與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昨年에 在美科學技術人을 招請하였던 오늘과 같은 綜合심포지움은 期待 以上の 큰 成果를 거둔 바 있습니다.

오늘 이 심포지움에서 國內外에 있는 우리들 科學技術人들이 한 자리에 모여 그간의 學術的인 연마를 通하여 얻은 知識과 經驗들을 서로 論議함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 經濟發展과 科學技術振興에 많은 寄與를 하리라 믿습니다.

오늘의 이 모임이 심포지움 그 自體로 끝날 것이 아니라 앞으로 國內外 科學技術知識의 끊임없는 交流 增進과 國家發展을 위한 國內外 科學技術人들의 參與를 더욱 다져가는 좋은 契機가 되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學術會議를 마련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支援을 아끼지 않으신 關係機關 및 兩側 準備委員會 會長團과 任員 그리고 事務局 여러분의 勞苦를 致賀하는 바이며 여러분의 健勝을 빌어마지 않습니다.

1975年 4月 1日